

이 철수 판화전에 부쳐

내 山居의 한 쪽 벽에는 이 철수의 판화 <소리 - 바람 부는 날 나뭇잎들>이 걸려 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들이 온통 떨어져 흩날리는 그 속으로 한 수행자가 가사자락을 날리면서 바람을 거슬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림이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아늑한 평온이 내 안에 깃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슴아슴 보이는 것 같다.

이 철수님은 송광사에서 펴내는 [佛日會報] 1면에 일 년 전부터 그림과 글을 실어 많은 독자들에게 따뜻한 삶의 뜨락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이 <바람 부는 날 나뭇잎들>도 그 중의 하나인데, 함께 실은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

바람 있습니다.
잊고 지내던 이에게서 소식 오듯이
그렇게 오시는 바람입니다.
나뭇잎들 나부끼는 대로
우리 마음도 따라 흔들이며 서 있게 되는
그 바람은 그대로 마음 풍경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나뭇잎도 흔들고
당신의 옷깃도 흔들고
가난한 세상도 흔들니다.
가을, 바람 소리 있는 날
그대 마음은 어디로가고 있는가?



이 철수의 글에서는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산촌에서 쇠여물 삶는 질박하고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그의 관화가 곁들인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주고 있다. 그의 그림에는 시詩가 깃들여 있다. 이런 질박하고도 구수한 문장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다.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 마을, 천등산 아래서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흙에 묻혀 살아가는 덕에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끄럽고 번잡하고 먼지에 싸인 도시 생활은 하루하루가 그대로 소모요 마멸이며 오염이다. 하지만, 흙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시골생활은 때묻음 없이 나날이 새롭게 피어남이요 소생이며 창조의 삶이다. 이 철수의 그림과 글은 이런 흙과 자연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 향기처럼 우리들 가슴에 산뜻하게 묻어온다.

불의와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80년대의 혹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의 관화는 울분과 함성과 저항으로 각인되었었다. 그러나 요즘의 작업에서는 그 시절의 거센 각인이 누그러지고 삶의 내밀한 뜰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예술가의 새로운 눈뜬이요 심화된 삶의 소산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는 투쟁이 아닌 평화요, 증오가 아닌 사랑이며, 온갖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에 있다

그의 관화 모음으로 된 금년 달력 중에 좌탈<座脫>이란 그림이 있다. 좌탈이란 앉아서 돌아가심을 뜻한 말이다. 앉아서 입적入寂한 한 노승 앞에 차 주전자와 끈이 풀린 염주알이 구르는 그림인데, 다음 같은 화제를 곁들이고 있다.



염주 알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조심들 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어떤 고승의 유계遺偈(열반송)보다도 그 표현이 담백하고 솔직하다. 그리고 소탈해서 감동적이다. 그 누가 되었건 한 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길 말은 어떤 것이겠는가.

“ 나 다녀간다 해라. 몸조심들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이 철수님의 그림과 글을 좋아해서, 주제 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몇 자 적어 그의 판화전을 함께 기리고자 한다.

글 / 법정